

사서교사의 전문성이 학교도서관 활성화에 미치는 영향*

- 경상북도 학교도서관의 운영실태분석을 중심으로 -

The Impact of Teacher Librarian's Professionalism on the School Library Revitalization

권 은 경(Eun-Kyung Kwon)**

< 목 차 >

- | | |
|-------------------------|----------------|
| I. 머리말 | 4. 학교도서관 운영 현황 |
| II. 경북 학교도서관 운영 실태조사 | 5. 학교도서관 서비스 |
| III. 조사 분석내용 | 6. 학교도서관 행사 |
| 1. 응답자의 특성 | 7. 정보기술의 사용 |
| 2. 학교도서관에 대한 인식 | IV. 맺는말 |
| 3. 도서관 담당교사의 리더십과 협력 정도 | |

초 록

본 연구는 교육인적자원부가 2003년도부터 5개년 계획으로 추진하는 학교도서관 활성화 사업을 통해서 2005년도 이전에 활성화된 경북지역의 학교도서관을 대상으로 도서관 담당인력(사서교사 vs. 일반교사)에 따른 도서관의 운영과 서비스의 효과 차이를 비교분석, 검증하였다. 연구방법은 기본적으로 사서교사와 일반교사가 운영하는 각각의 도서관에 대하여 표본을 추출하고 우편으로 설문조사하였으며 필요에 따라 직접 면담, 전화 면담, 이메일 등의 방법을 병행하였다. 설문조사 내용은 도서관 담당교사의 도서관 기능에 대한 인식과 도서관 담당교사의 역할에 대한 인식, 활성화 이후 학교구성원(학교장/교감, 교사, 학생)들의 도서관에 대한 관심 추이, 도서관 운영 현황-예산, 장서구성, 자료수집, 자료조직, 비도서 자료관리, 교사와 학생에 대한 서비스의 종류와 효과, 도서관 행사, DLS와 홈페이지를 포함한 정보기술의 활용정도 등을 포함하고 있다. 수집한 데이터를 사서교사와 일반교사의 두 그룹으로 나누어 각 영역의 효과를 비교 분석하였다.

주제어: 학교도서관 활성화, 사서교사의 전문성, 사서교사의 효과, 학교도서관 전담인력, 비교연구

ABSTRACT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analyze the survey and prove the role and impact of teacher librarian's professionalism on the School Libraries Revitalization. The samples of the survey, consisted 96 school libraries in Kyungbuk Province, were revitalized before 2005 by School Library Revitalization Project of Ministry of Education and Human Resources, Korea. The samples were divided into two groups: the one group consisted of 47 libraries managed by teacher librarian, and the other group consisted of 49 libraries which were managed by class teachers who are not majored in Library Science. The questionnaires were mainly conducted by survey but interview, telephone, and e-mail method also used.

The state of the art of the library management, including budget, acquisition, cataloging, collection management, circulation, information technology, and the services for the faculties and students between two groups were analyzed and compared. The results showed that teacher librarian group offers more user-tailored and intensive services than class teacher group.

Key Words: Teacher Librarian's Professionalism, School Library Revitalization Project, Impact of Teacher Librarian, Comparative Study

* 이 논문은 2005년 교육인적자원부의 재원으로 한국학술진흥재단의 지원을 받아 수행된 연구임.
(KRF-2005-041-H00010)

** 대구대학교 문헌정보학과 교수(eunkwon@daegu.ac.kr)

• 접수일: 2007년 8월 25일 • 최초심사일: 2007년 8월 3일 • 최종심사일: 2007년 9월 21일

I. 머리말

2003년도부터 시작된 학교도서관 활성화 사업은 5개년 사업으로 2007년도에 마무리를 앞두고 있다. 전국적으로 4,898개 학교의 도서관이 2006년도 4월 1일자까지 활성화 사업을 완료하였거나 신청하였다. 2007년까지 총 6,000개의 학교도서관을 지원하려는 목표치의 81.63%가 지원을 받은 것이다. 2003년도에서 2005년도까지 수행된 활성화 사업의 성과에 대해서는 『학교도서관 활성화 종합방안 효과에 대한 분석』¹⁾이 발표되었고, 2005년도와 2006년도의 사업에 대해서는 『학교도서관 활성화 사업에 대한 인식 및 효과성 측정연구』²⁾가 발표되었다.

곽철완, 장윤금은 활성화 사업 3년간의 추진 실적 및 운영현황을 전수조사하고 그 성과를 분석하여 학교도서관 활성화 사업의 효과와 문제점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정리하였다.

활성화 사업 지원 효과로는 도서관 운영시간의 증가, 도서관 프로그램 증가, 장서 증가, 학생들의 도서관 이용 증가가 있으며 문제점으로는 활성화 사업이 시설에 치중된 점과 장서의 주제별 균형이 고려되지 않은 점 등이 있다. 즉 활성화 예산의 20%를 장서확충에 투자해야 한다는 지침이 있었고 학교운영 예산 3%를 장서구입에 사용해야 한다는 지침이 있지만 시설투자에 집중된 문제가 있으며, 장서에 있어서도 문학작품에 치중되어 있는데 그 이유는 도서관 담당자가 국어교사이기 때문인 것과 독서를 문학자료 읽는 것으로 인식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를 시정하기 위해서는 도서관 기준에 따를 필요가 있다. 학생들의 학업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4대 요인의 관점에서 살펴볼 때 운영시간은 적절하며 도서관 이용지도가 도서관 이용능력 향상을 가져오며 독서교육이 독서 및 학습능력 향상에 도움이 되며 학교도서관 이용이 더 많아졌으나 장서는 부족하다. 추후 고려사항으로는 첫째, 장서 확충을 위한 체계적 연구가 필요하며 둘째, 도서관의 효과적 활용을 위한 다양한 프로그램 연구가 필요하며 도서관을 통해 다양한 정보획득과 이를 활용한 수업 진행이 필요하고 다양한 정보원 수집 및 이에 대한 접근이 보장되어야 하며 셋째, 전문 인력이 확보되어야 한다.³⁾

노영희, 권재현은 2005년도와 2006년도에 활성화 지원을 받은 총 2,379학교 중 422학교에 대해서 학교장, 교과담당교사, 도서관 담당교사, 학생, 그리고 장학사를 대상으로 사업에 대한 만족도와 사업의 성과, 문제점, 개선사항 등을 설문조사하여 분석하였다. 그 결과는 다음과 같다.

모든 설문조사 대상 그룹은 활성화 사업에 대하여 매우 높은 만족 수준을 보였다. 도서관 담당교사는 학생들의 도서관에 대한 이해도가 높아지고 교수-학습방법이 크게 개선되었을 뿐 아니라 자

1) 곽철완, 장윤금. "학교도서관 활성화 종합방안 효과에 대한 분석," 한국도서관·정보학회지, 제37권 제4호(2006. 12), pp.143-160.

2) 노영희, 권재현. "학교도서관 활성화 사업에 대한 인식 및 효과성 측정연구," 한국문헌정보학회지, 제41권 제2호(2007. 6), pp.81-110.

3) 곽철완, 장윤금. pp.157-159.

료, 시설 등 학교도서관에 대한 요구 수준도 높아졌다고 하였다. 교과담당교사를 대상으로 한 설문 결과에서는 도서관 활용수업을 비롯하여 학교도서관 활용도가 매우 높아진 것으로 분석되었으며, 학생들은 도서관의 개방시간, 자료, 멀티미디어 기자재 등에 만족하고 있으며 장학생들 역시 교육 환경개선에 크게 도움이 되는 것으로 만족도가 높은 것으로 조사되었다.⁴⁾ 사업 추진상의 어려움과 시급한 개선점에는 예산과 인력 지원, 특히 전문 인력의 배치가 있다.⁵⁾

이상의 두 연구는 전국의 활성화 학교를 전수 또는 편의 표집하여 도서관 운영 및 서비스 효과를 활성화 사업 이전과 비교 분석한 것으로 연구 결과는 매우 긍정적인 것으로 나타났다. 본 연구는 전술한 연구와는 달리 경북지역의 활성화 학교를 연구대상으로 하였다. 그리고 위의 두 연구가 활성화 이전과 이후의 도서관 활동을 비교분석한 것과는 달리 본 연구는 사서교사가 운영하는 도서관과 일반교사가 운영하는 도서관의 차이점을 비교분석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였다.

경북의 학교도서관을 연구대상으로 선택한 이유는 다음과 같다. 경북도교육청은 전국적인 학교도서관 활성화 사업이 시작되기 전인 2002년에 이미 22명의 사서교사를 임용 배치하였다. 그리고 2002년에서 2004년까지 3년 동안 46명의 사서교사를 배치하였으므로 활성화 사업 이후 사서교사와 일반교사가 운영하는 도서관의 활동을 비교분석하기 위해서 설문조사 대상이 되는 사서교사의 수가 어느 정도 확보되어 있다는 점이다. 그리고 짚기는 하지만 활성화 사업 이후의 운영 실적이 다소간 누락되어 있고 따라서 사서교사와 일반교사의 실적을 비교할 수 있는 최소한의 데이터 확보가 가능하다는 점이다.

II. 경북 학교도서관 운영 실태조사

1. 연구목적

학교도서관 활성화 사업은 4대 과제, 즉 도서관 기본시설 및 장서 확충, 도서관 활용 프로그램 강화, 전담 관리인력 배치 및 전문성 제고, 학교도서관 지원 민관협력체제 구축을 중점적으로 추진하는 사업으로 출범하였다. 도서관계와 문헌정보학계는 학교도서관 활성화 사업에 대해서 전대미문의 국가적 사업으로 인정하면서도 인력확보의 문제, 특히 사서교사의 배치에 대해 매우 소극적인데 대해서 사업시행 전부터 우려의 목소리가 높았다. 우려는 학교도서관의 시설과 장서를 확충하고 도서관 활용 프로그램을 개발 실시하고 민관협력체제를 구축하는 이 모든 활동을 전담할 수 있는 전문인력의 배치가 우선되지 않고서는 소기의 효과를 얻기가 매우 어렵다고 보기 때문이었다. 이

4) 노영희, 권재현, p.107.

5) 노영희, 권재현, pp.103-4.

후 2006년도와 2007년도에 상당한 규모의 사서교사를 임용하였으나 아직 체계적인 배치 계획은 수립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본 연구의 목적은 사서교사가 도서관을 운영하는 경우와 일반교사가 도서관을 운영하는 경우를 비교할 때 어떤 차이가 있는가를 밝혀보는 것이다. 더 근본적으로는 학교도서관 담당자의 전문성 여부가 과연 학교도서관 운영 및 서비스에 차이를 가져오는가를 확인하는 것이다. 사서교사 임용의 필요성에 대한 주장이 단순히 이론적인 것이며 또는 문헌정보학계나 도서관계의 전공 이기적인 발상에 기인하는 것인지 아니면 학교도서관 운영과 서비스 면에서 차이가 있는지, 차이가 있다면 어떤 차이, 어느 정도의 차이가 있는지, 그것이 교육환경 개선에 실질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것인지를 분석하여 사서교사의 역할적 전문성과 사서교사 배치의 당위성을 검증해보는 것이 이 연구의 목적이다.

2. 연구방법

본 연구를 수행하기 위하여 기본적으로 설문조사 방법을 사용하였다. 설문 작성과 예비 설문조사 결과분석 시에 사서교사들과 직접 면담, 전화, 이메일을 이용하여 수시로 의견을 교환하였으며 그 내용을 본 조사에 반영하였다. 사서교사 또는 일반교사가 담당하는 도서관의 운영 현황, 서비스의 종류와 실적의 차이 등을 비교 분석하기 위해서는 누적된 활동 결과가 필요하므로 2003년도과 2004년도에 활성화 사업의 지원을 받은 도서관, 그리고 2001년도에서 2004년도까지 디지털 도서관 사업을 지원받은 도서관을 조사 대상범위로 정하였다. 2004년도까지 디지털 및 활성화 사업의 지원을 받은 학교 수는 각각 27개, 265개(2003년도 131교, 2004년도 134교)였다. 지원받은 시기를 2004년도까지로 제한한 이유는 본 조사 실시년도 및 직전 연도에 활성화 사업을 한 학교를 배제시킴으로써 사업의 즉시적 효과가 가져오는 변수를 가능한 제한하고 비교적 안정된 상황에서 도서관 담당자에 의한 차이를 분석하기 위해서였다.

2006년도 조사시점에 경북지역에 배치된 사서교사 54명(기간제 교사 10명 포함) 중 중고등 통합학교에 배치된 사서교사를 제외하고 초·중·고에 근무하는 47명(초등학교 23명, 중학교 13명, 고등학교 11명)과 이들 학교와 규모가 비슷한 비교대상 학교(학생수 500이상) 98개, 학생 수가 적은 중소규모 학교 47개교를 포함하여 192개 학교에 설문지를 우편으로 발송하였다. 설문지는 11월 15일에 우편 발송하여 12월 10일까지 회신된 것을 분석하였다. 회신 학교는 96개로 전체 사업 지원 학교(292교)의 32.9%에 해당하며 설문 회수율은 50%이다. 학교급별 설문지 발송학교와 회신학교의 수, 그리고 회수율은 <표 1>과 같다.

〈표 1〉 설문조사 대상 및 회신 학교 수

구 분	사서교사학교 (회신수/회수율)	비교대상학교 (회신수/회수율)	중소규모학교 (회신수/회수율)	계 (회신수/회수율)
초	23(23/100)	49(14/29)	18(6/33)	90(43/48)
중	13(13/100)	30(15/50)	12(2/17)	55(30/55)
고	11(11/100)	19(7/37)	17(5/29)	47(23/49)
계	47(47/100)	98(36/37)	47(13/28)	192(96/50)

본 조사를 실시하기 전 예비 설문을 작성하여 10여명의 사서교사에게 인터넷으로 응답하도록 하고 인터넷과 면담 토론과정을 통해 문항이 애매하거나 오해의 여지가 있을 경우 더 정확한 응답을 유도할 수 있는 질문으로 수정하였다. 이 과정에서 사서교사들은 문항에 더 정확한 전문용어를 쓸 것을 요구하기도 하였으나 본 설문은 사서교사만을 위한 것이 아니므로 가능한 한 일반적인 용어를 사용하였다. 그리고 DLS를 이용해야 하는 항목을 위해서 설문지에 사용방법과 문의처 등의 정보를 제공하였으나 일반교사의 경우 사용한 적이 없거나 사용이 미숙하여 결측치가 다수 발생하였다. 이 경우에는 결측치를 제외하고 비율을 계산하였다. 통계처리는 SPSS 12.0을 사용하였다.

3. 연구내용

첫째, 학교도서관 담당교사가 이해하는 전반적인 학교도서관 운영현황과 학교 구성원(교장/교감, 교사, 학생)의 도서관에 대한 인식을 조사하였다.

둘째, 한국도서관협회에서 발행한 『한국도서관기준』의 학교도서관 평가기준에 포함된 내용 중 자료, 봉사, 교육, 홍보, 예산, 상호협력 등과 관련된 항목에서 사서교사와 일반교사의 활동 및 업무의 차이를 조사하였다.

셋째, 미국에서 수행된 학생들의 학업성취도에 미치는 학교도서관의 영향 분석연구에서 밝혀진 요소들, 즉 학교도서관 발달수준, 사서교사의 리더십과 교사들과의 협력정도, 정보기술의 이용정도 등과 관련하여 사서교사와 일반교사의 활동의 차이를 분석하였다.

넷째, 우리나라 학교도서관 활성화 사업 성과분석에서 지적되고 있는 예산, 장서 구성의 문제, 도서관 활용수업의 정도, 도서관 프로그램 개발 등의 사항에서 사서교사와 일반교사에서 어떤 차이가 나타나는지를 조사하였다.

다섯째, 현장의 문제로 지적되고 있는 비도서 자료의 통합관리 문제, 동료교사와의 협력관계 전반에 걸쳐서 일반교사와 사서교사 운영에서 어떤 차이가 있으며 이것은 학교도서관 활성화, 본질, 정체성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가를 분석하였다.

4. 연구의 효과

첫째, 학교도서관 활성화 사업과 관련해서 현재까지 수행된 연구들은 전국 규모의 현황 분석이며 기본적으로 정량적 연구이다. 본 연구는 설문조사에 의한 통계적 분석이기는 하나 정성적 분석을 지향하였으며 도서관 활성화의 주체가 되어야 할 사서교사의 전문성이 도서관 활동에 미치는 효과를 분석하여 사서교사 배치의 필요성을 주장할 수 있는 기초 자료로 활용할 수 있다.

둘째, 사서교사와 일반교사의 도서관 활동에 대한 차이를 분석해 봄으로써 일반교사로서 도서관을 운영할 수밖에 없는 경우에 무엇을 어떻게 개선해야 할지 활동의 종류와 우선순위를 정하는데 참고할 수 있다.

셋째, 인력운영의 효과를 최대화하기 위하여 또는 학교도서관 운영의 효율을 기하기 위하여 향후 주력해야 할 분야 및 활동을 찾고 개선할 부분을 찾아낼 수 있다.

넷째, 학교도서관 활성화를 위해 개발되어야 할 정책과 실천을 선정할 수 있다.

다섯째, 향후 더욱 세분하여 분석해야 할 분야를 찾는 데 도움이 될 것이다.

여섯째, 사서교사에 대한 교육방향 및 내용을 설정하는 것에도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이다.

5. 연구의 한계

경상북도의 지역적 특성은 지자체 간에 인구통계, 지리적, 사회적환경의 차이가 크다는 점을 들 수 있다. 울산, 구미, 포항과 같은 대규모 자치체가 있는 반면 영양, 영주, 봉화 등과 같이 인구가 매우 적은 지역이 있어 학교의 교육환경과 학생 수에서 큰 차이를 보이고 있다. 지자체 간의 교육 환경에 차이가 많아서 연구내용 중에는 경북지역 내에서도 일반화하기 어려운 부분이 있을 수 있고 타 대도시의 경우에 일반화할 수 없는 부분도 있을 수 있다.

설문조사에서 발생될 수밖에 없는 연구의 한계를 인정한다 하더라도 이제까지 활성화 사업에 대한 연구가 전국을 대상으로 하고 교육청의 협조 또는 교육행정기관의 보고서로서 조사된 것임을 감안하면 본 연구는 실상을 좀 더 상세하게 분석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을 것으로 생각된다.

Ⅲ. 조사 분석내용

1. 응답자의 특성

설문조사에 응답한 학교도서관 담당교사의 특성은 사서교사의 경우 임용연도로 보면 2002년 18

명, 2003년 10명, 2004년 16명, 그리고 1998년과 2006년에 각각 1명, 2명이 임용되었다. 일반교사로서 초등학교 도서관을 담당하는 교사는 1학년에서부터 6학년까지 골고루 분포되어 있다. 중등학교의 경우 담당하는 교과목별로 분석해 보면 전체 29명 중 국어교사가 24명으로 82.3%를 차지하고 있으며, 중학교에서는 도덕 담당교사가 1명, 고등학교에서는 사회, 한문, 역사, 윤리 담당교사가 각각 1명씩 포함되어 있다.

2. 학교도서관에 대한 인식

가. 학교도서관 담당교사의 인식

(1) 학교도서관 기능에 대한 도서관 담당교사의 인식

학교도서관의 기능으로 현재 치중하고 있는 것은 학생들의 독서지도와 독서교육기능이 단연 1위로 79명(81.4%)였으며, 문화활동과 휴식공간이 10명(10.3%), 교과과정과 관련한 교수 학습정보 제공은 8명(8.2%)이다. 이러한 인식을 초·중·고등학교, 사서교사/일반교사로 나누어 분석해보면 <표 2>와 같다.

<표 2> 학교도서관 기능에 대한 도서관 담당교사의 인식

구분	사서교사			일반교사			계
	독서	교수학습정보	문화 휴식	독서	교수학습정보	문화 휴식	
초	18	1	4	19	0	1	43
중	10	1	2	15	1	1	30
고	9	1	1	8	3	1	23
합(%)	37(78.7)	3(6.4)	7(14.9)	42(85.7)	4(8.2)	3(6.1)	96

※ %는 각 교사군 내에서의 비율을 의미하며, 이하의 모든 표에서도 동일하다.

전체 사서교사의 78.7%, 일반교사의 85.7%가 독서기능에 중점을 두고 있다. 사서교사의 경우 일반교사보다는 문화공간으로서의 역할에 좀 더 관심을 기울이고 있으며, 특히 초등학교 경우에 17.4%(23명 중 4명)가 문화공간에 비중을 두고 있다.

(2) 향후 강화되어야 할 학교도서관의 기능

교사의 70.2%, 일반교사의 44.9%는 향후 교수 학습정보를 제공하는 기능이 강화되어야 한다고 생각하고 있으며 사서교사의 23.4%, 일반교사의 38.8%는 독서기능을, 일반교사의 16.3%, 사서교사의 6.4%는 도서관이 문화 휴식공간으로 강화되어야 할 것으로 생각하고 있다.

〈표 3〉 도서관 담당교사가 향후 강화되어야 할 것으로 생각하는 도서관의 기능

구분	사서교사			일반교사			계
	독서	교수학습정보	문화 휴식	독서	교수학습정보	문화 휴식	
초	5	16	2	10	4	6	43
중	2	10	1	4	11	2	30
고	4	7	0	5	7	0	23
합(%)	11(23.4)	33(70.2)	3(6.4)	19(38.8)	22(44.9)	8(16.3)	96

〈표 2〉와 〈표 3〉을 비교해보면 전체적으로 학교도서관의 현재 기능은 독서교육에 치중되어 있으나 앞으로는 교수 학습정보 제공기능이 강화되어야 할 것으로 인식하고 있다. 향후의 학교도서관 기능 변화에 대한 두 집단의 인식을 비교해보면 사서교사의 경우 독서교육에 대한 비중이 78.7%에서 23.4%로, 문화 휴식공간의 기능이 14.9%에서 6.4%로 낮아지고 교수 학습정보 제공 기능은 6.4%에서 70.2%로 높아졌다.

한편 일반교사는 현재 독서기능에 치중하고 있는 비율이 85.7%에서 38.8%로 낮아지고, 교수 학습정보 제공기능과 문화 휴식공간의 기능이 각각 8.2%에서 44.9%, 6.1%에서 16.3%로 높아진 것으로 분석되었다. 일반교사의 경우 교수 학습정보 제공기능이 가장 높기는 하나 사서교사에 비해 독서기능과 문화 휴식공간 기능에도 큰 비중을 두고 있다.

(3) 활성화 사업 이후 학교도서관 운영의 어려운 점

활성화 이후 도서관 운영에 있어서 가장 어려운 점에 대해서는 사서교사와 일반교사 사이에 완전한 차이가 보인다. 〈표 4〉에서 보는 바와 같이 사서교사는 동료교사들의 인식과 협력 부족(54.3%)을, 일반교사들은 업무 및 시간부담(62.5%)을 가장 힘든 점으로 지적하였다. 다음으로 사서교사는 과도한 기대와 업무 부담을, 일반교사는 전문지식의 부족과 교사들의 인식 부족을 들었다. 특히 초등학교에 배치된 사서교사의 34.8%는 도서관에 대한 과도한 기대를 가장 어려운 점으로 지적하고 있는 것이 특징적이다.

〈표 4〉 활성화 이후 학교도서관 운영의 어려운 점

구분	과도한 기대		무관심		전문지식 부족		교사들의 인식 /협력부족		업무/시간부담	
	사서교사	일반교사	사서교사	일반교사	사서교사	일반교사	사서교사	일반교사	사서교사	일반교사
초	8	1	1	0	0	4	9	3	4	11
중	0	1	1	0	0	2	11	1	1	13
고	2	0	1	0	0	4	5	2	3	6
합(%)	10(21.7)	2(4.2)	3(6.5)	0(0.0)	0(0.0)	10(20.8)	25(54.3)	6(12.5)	8(17.4)	30(62.5)

※ 초등 사서교사, 일반교사에 각 1개의 결측치 있음.

나. 도서관 담당교사(사서교사 vs. 일반교사)의 역할에 대한 인식 비교

사서교사, 일반교사를 포함한 전체 응답자 96명은 일반교사가 더 잘 할 것으로 기대하는 것으로는 교사와의 협력(54명, 56%), 독서교육(36명, 37%), 교수 학습정보 제공(23명, 24%), 독서 및 도서관 행사(10명, 10%), 자료/도서관 활용교육(9명, 9%), 자료수집 및 조직(3명, 3%) 순이었다(중복선택).

사서교사가 더 잘 할 것으로 기대하는 것은 자료수집 및 조직(73명, 75%), 자료/도서관 활용교육(68명, 70%), 도서관 행사(61명, 63%), 교수 학습정보 제공(44명, 45%), 독서교육(39명, 40%), 교사와의 협력(18명, 19%) 순이다. 전체 응답자가 각각의 교사 집단이 잘 할 것으로 기대하는 순위는 완전한 역순이었다. 다시 말해서 일반교사가 사서교사보다 더 잘 할 것으로 기대하는 첫 번째 순위의 '교사와의 협력'은 사서교사가 가장 못할 것이라고 생각하는 1 순위였다.

상기 내용을 사서교사와 일반교사의 집단으로 나누어 분석해 보면 <표 5>와 같다.

<표 5> 일반교사가 더 잘 할 것으로 기대하는 도서관 활동

구분	교사 협력		교수학습 정보제공		자료조직		독서교육		자료/도서관 활용교육		도서관행사	
	사서 교사	일반 교사	사서 교사	일반 교사	사서 교사	일반 교사	사서 교사	일반 교사	사서 교사	일반 교사	사서 교사	일반 교사
초	17	9	4	5	1	1	5	6	1	6	0	3
중	8	8	2	5	0	0	4	10	0	1	1	3
고	7	4	1	6	1	0	6	5	1	1	0	3
합 (%)	32 (68.1)	21 (42.9)	7 (14.9)	16 (32.7)	2 (4.3)	1 (2.0)	15 (31.9)	21 (42.9)	2 (4.3)	8 (16.3)	1 (2.1)	9 (18.4)

※ %는 각 교사군 내에서의 비율임.

<표 5>에서 일반교사의 50% 이상이 스스로 사서교사보다 더 잘 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도서관 기능은 하나도 없다.

<표 6> 사서교사가 더 잘 할 것으로 기대하는 도서관 활동

구분	교사 협력		교수학습 정보제공		자료조직		독서교육		자료/도서관 활용교육		행사	
	사서 교사	일반 교사	사서 교사	일반 교사	사서 교사	일반 교사	사서 교사	일반 교사	사서 교사	일반 교사	사서 교사	일반 교사
초	3	4	12	6	19	12	11	6	20	12	18	7
중	2	3	7	8	11	13	8	4	10	9	11	9
고	4	2	7	3	9	8	5	4	9	7	9	6
합 (%)	9 (19.1)	9 (18.4)	26 (55.3)	17 (34.7)	39 (83.0)	33 (67.3)	24 (51.1)	14 (28.6)	39 (83.0)	28 (57.1)	39 (83.0)	22 (49.0)

〈표 6〉을 보면 사서교사의 50% 이상은 교사와의 협력을 제외한 모든 영역에서 자신들이 일반교사보다 더 잘 할 수 있다고 생각하고 있다.

〈표 5〉와 〈표 6〉을 비교해보면 교사의 협력을 끌어내는 문제에 대해 사서교사들의 68.1%는 일반교사가 유리할 것으로 생각하고 있다. 그런데 일반교사의 경우 사서교사가 자신들보다 '교사와의 협력'에서 더 나을 것으로 생각하는 비율은 낮지만(18%) 그렇다고 자신들이 사서교사보다 더 잘 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비율도 42.9%에 지나지 않는다.

그러나 자료조직을 제외한 모든 영역에서 일반교사들은 비율이 높지는 않다 하더라도 사서교사가 생각하는 것보다는 잘 할 수 있다는 의욕을 보이고 있다. 특히 교수 학습정보 제공에서 일반교사의 34.7%는 자신들이 사서교사보다 더 잘 할 수 있다고 생각하고 있으며 고등학교 일반교사의 50%가 그렇게 생각하고 있다. 여기에서 교수 학습에 필요한 정보를 일반교사가 어떻게 이해하고 있는지 상당히 궁금할 수 있다. 예를 들면 범 교과적 정보가 아니라 자신들이 맡고 있는 교과와 정보를 의미하는 것으로 축소 해석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확인할 필요가 있다.

독서교육에 대해서는 학교 현장에서 드러나고 있는 바와 같이 상당한 갈등이 엿보인다. 일반교사의 42.9% 사서교사의 51.1%가 자신들이 더 잘 할 수 있는 분야로 인식하고 있다. 또한 일반교사의 28.6% 사서교사의 31.9%는 상대방이 자신들보다 더 잘 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하고 있다. 사서교사의 독서교육 내용과 방법이 더 구체적으로 논의될 필요가 있다고 하겠다.

다. 학교 구성원의 도서관에 대한 관심

활성화 이후 학교도서관에 대한 학교 구성원의 관심도는 꾸준히 지속되거나 점점 더 높아지는 경향을 보이고 있다(표 7 참조). 그러나 집단에 따라 약간의 차이가 있는데 관심이 지속적이거나 더 높아지는 비율로 보면 교장/교감은 83.3%, 교사는 86.6%, 학생은 96.9%로 학생들의 도서관에 대한 관심도가 가장 높게 유지되고 있다. 사서교사와 일반교사에 의한 차이는 크지 않으며 오히려 학교급별 차이가 더 두드러지게 나타나고 있다. 교장/교감의 관심이 지속적이거나 이전보다 더 높아지는 비율은 초등학교에서 93.0%로 가장 높고, 고등학교와 중학교는 각각 78.3%, 73.3%로 낮아지고 있다. 교사들의 관심도는 학교급별에 따라 차이가 별로 없으며 학생들의 관심도는 매우 높는데 고등학교, 중학교, 초등학교 순이다. 특히 중학생은 도서관에 대한 관심이 점점 더 높아지는 학교가 많다는 특성을 보이고 있다.

〈표 7〉 학교 구성원의 도서관에 대한 관심도

구 분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교장/교감	교사	학생	교장/교감	교사	학생	교장/교감	교사	학생
더높아짐(1)	12	11	18	8	9	17	1	5	9
지속됨(2)	28	26	23	14	17	12	17	15	14
낮아짐	3	6	2	7	4	1	5	3	0
많이 낮아짐	0	0	0	1	0	0	0	0	0
합계	43	43	43	30	30	30	23	23	23
1+2의비율(%)	93.0	86.0	95.3	73.3	86.7	96.7	78.3	87.0	100

3. 도서관 담당교사의 리더십과 협력 정도

가. 학교장과의 상의 횟수

도서관 담당자가 학교 행정의 책임자인 학교장과 얼마나 빈번히 만나서 상의하는가는 도서관 발전을 위한 중요한 변수가 된다. 미국의 학교도서관이 학업성취도에 미치는 효과 연구⁶⁾에서는 도서관 담당자가 학교장과 얼마나 빈번히 접촉하는가는 도서관 발전을 예측할 수 있는 중요 변수로 파악되었다.

사서교사의 경우 월 1회 이상 상의하는 학교가 78.3%(36개)인데 비해 일반교사의 경우에는 50.0%(24개)이므로 훨씬 낮다. 교장과의 상의는 초등학교에서 보다 빈번히 이루어지며, 월 2-3회로 하는 일반교사의 경우에는 규모가 작은 학교에서 잘 이루어지고 있다.

〈표 8〉 도서관 담당교사와 학교장의 상의 횟수

구 분	0		연 1회		연 2회		월 1회		월 2회 이상	
	사서 교사	일반 교사	사서 교사	일반 교사	사서 교사	일반 교사	사서 교사	일반 교사	사서 교사	일반 교사
초	0	1	0	2	3	7	18	6	1	4
중	1	0	1	1	2	6	8	9	1	1
고	0	1	0	1	3	5	7	3	1	1
합 (%)	1 (2.2)	2 (4.2)	1 (2.2)	4 (8.3)	8 (17.4)	18 (37.5)	33 (71.7)	18 (37.5)	3 (6.5)	6 (12.5)

※ 초등 사서교사, 고등 일반교사에 각 1개의 결측치 있음.

6) 권은경. "미국 학교도서관이 학업성취에 미치는 효과 연구에 대한 고찰," 한국도서관·정보학회지, 제37권 제3호 (2006. 9), pp.381-414.

나. 동료교사들과의 협력 정도

〈표 5〉와 〈표 6〉에서 사서교사와 일반교사 사이에 도서관 운영에서 더 잘 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역할을 비교하였다. 두 표에서 일반교사 사서교사 두 집단 모두 동료교사와의 협력에서 일반교사가 더 잘 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하고 있었다. 실제에 있어서 협력은 어떻게 수행되고 있는지 분석하였다.

〈표 9〉 도서관 담당교사가 동료교사에게 협력을 요청하는 횟수

구분	0		연 1회		연 2회		월 1회		월 2회 이상	
	사서교사	일반교사	사서교사	일반교사	사서교사	일반교사	사서교사	일반교사	사서교사	일반교사
초	1	2	0	1	6	12	14	5	1	0
중	0	4	0	1	3	4	9	6	1	2
고	0	3	1	2	3	2	6	3	1	0
합 (%)	1 (2.2)	9 (18.5)	1 (2.2)	4 (8.3)	12 (26.1)	18 (37.5)	29 (63.0)	14 (29.2)	3 (6.5)	2 (4.2)

※ 초등 사서교사, 고등 일반교사에 각 1개의 결측치 있음.

사서교사가 1년에 2회 이하로 협력을 요청하는 학교는 30.4%(14개), 일반교사의 경우 64.6%(31개)이다. 특기할 사항은 일반교사로 1년 동안 단 한 번도 동료교사에게 도서관업무로 협력을 요청하지 않은 학교가 18.8%(9개)나 된다는 사실이다. 월 1회 이상의 학교는 사서교사 학교 69.6%(32개), 일반교사 33.3%(16개)로 사서교사가 일반교사보다 동료교사에게 훨씬 더 많이 협조를 요청하고 있다(표 9 참조).

학교급별로 비교해보면 월 1회 이상 협력을 요청하는 학교의 수는 초등학교 43.5%며, 중학교 60.0%, 고등학교 45.5%로 중학교에서 사서교사의 협력 요청이 가장 활발하다.

반면에 동료교사들은 도서관 담당교사에게 어느 정도로 협력을 요청하는가? 〈표 10〉을 보면 지난 1년 동안 자료수집/활용을 위한 협력을 전혀 요청하지 않은 비율은 사서교사 학교의 경우 6.8%(44개 중 3개) 뿐인데 비해 일반교사 학교의 경우에는 29.8%(47개 중 14개)이며, 월 1회 이하로 요청한 경우가 사서교사, 일반교사 모두에게서 가장 많은 비율을 보이고 있다. 월 1회보다 많은 경우는(월 2회 이하에서 그 이상)사서교사 학교는 36.5%(15개), 일반교사 학교는 23.4%(11개)이다.

〈표 10〉 동료교사가 도서관 담당교사에게 협력을 요청하는 횟수

구분	0		월 1회 이하		월 2회 이하		월 3회 이하		월 5회 이하		월 5회 이상	
	사서교사	일반교사	사서교사	일반교사	사서교사	일반교사	사서교사	일반교사	사서교사	일반교사	사서교사	일반교사
초	0	6	8	9	6	2	3	1	3	1	1	1
중	0	4	9	9	1	2	1	1	1	0	0	1
고	3	4	3	4	3	1	2	1	0	0	0	0
합 (%)	3 (6.8)	14 (29.8)	20 (45.5)	22 (46.8)	10 (22.7)	5 (10.6)	6 (13.6)	3 (6.4)	4 (9.1)	1 (2.1)	1 (2.3)	2 (4.3)

※ 초등 사서교사 2, 중 사서교사 1, 고등 일반교사 2개의 결측치 있음.

전체적으로 교사들이 도서관 담당교사에게 자료협력을 요청하는 것은 그다지 활발하지 않다. 일반적으로 도서관 활용에서 교사들의 협력을 끌어내는 것은 일반교사가 더 유리할 것으로 생각하고 있지만(III.2.나. 도서관 담당교사의 역할에 대한 인식 비교 참고) 실제로 동료교사들이 도움을 요청하는 것은 사서교사일 때 더욱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그러므로 도서관 운영에 있어서 동료교사들의 협력을 이끌어내는 부분에 있어서는 일반교사나 교과교사가 유리할 것이라고 생각해온 것은 잘못된 인식임이 밝혀졌으며 전담 인력이 있어야 협력이 더 잘 이루어질 수 있다고 결론지을 수 있다.

다. 이용이 빈번한 교과

도서관 활용을 많이 하는 교과는 학교급별과 관계없이 국어가 단연 으뜸으로 75.3%를 차지하고 있다. 그러나 학교급별을 불문하고 사서교사가 운영하는 도서관이 일반교사가 운영하는 학교에 비해 빈번히 이용하는 교과가 더 다양한 편이다. 학교급별로는 초등학교에서 도서관을 이용하는 교과가 비교적 다양한 편인데 사서교사 학교(응답 22교)는 국어 12, 과학 3, 사회 7로 국어 교과의 비율이 55%이며, 일반교사 학교(응답 18교)에서는 국어 12, 과학1, 사회 5로 국어 교과의 비율이 67%이다. 중·고등학교에서는 국어교과가 차지하는 비율이 초등학교보다 더 높은 85% 정도이며 사서교사 학교에서는 미술, 음악, 사회, 보건이 일반교사 학교에서는 한문, 영어가 각각 1교씩 조사되었다.

사서교사 학교에서 더 다양한 교과의 도서관 활용이 실시되는 것은 일반교사보다 사서교사가 더 다양한 교과를 지원할 수 있기 때문으로 생각된다. 반면에 일반교사로서는 국어교사가 도서관을 담당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므로 국어교과의 도서관 활용이 가장 많은 것은 당연한 현상이라고 할 수 있다 그러므로 이 경우에 도서관 이용이 국어교과 또는 독서의 연장으로 잘못 인식될 소지가 있다.

라. 도서관 관련 위원회 활동과 타 도서관과의 협력

전체 96학교 중 86개 학교(89.6%)에 도서관 관련 위원회가 조직되어 있다. 10개 학교에는 없는데 이들은 모두 일반교사 학교이다. 80개 학교가 자료선정위원회를, 18개 학교가 도서관운영위원회를 갖고 있다. 그러므로 12개 학교는 두 종류의 위원회를 모두 갖고 있는 셈이다.

도서관 담당교사가 교내의 어떤 위원회에 얼마나 가입하여 활동하고 있는가를 자유기술 방식으로 조사하였다. 현황은 가입한 경우가 41, 그렇지 않은 경우가 48이며 결측값이 7이다. 결측을 가입하지 않은 쪽에 포함시키면 55개교의 담당교사(57.3%)는 교내의 어떤 위원회에도 가입되어 있지 않다.⁷⁾

〈표 11〉 도서관 담당교사의 위원회 가입과 타 도서관과의 협력

구 분	위원회 가입		타 도서관과의 협력	
	사서교사	일반교사	사서교사	일반교사
초	9	9	5	13
중	4	8	1	4
고	7	4	2	4
합	20	21	8	21
가입/협력비율(%)	42.6	42.9	17.0	42.9

가입한 위원회의 종류는 자료선정위원회가 압도적으로 많으며, 사서교사의 경우 도서관 운영위원회, 국어과 위원회, 독서연구회, ICT활용교육연구회에 가입된 경우가 있으며, 일반교사의 경우 간부회의, 교과연구회, 독서, 독서지도 연구회가 있다.

타 학교도서관 또는 공공도서관과의 협력은 사서교사의 경우에 의외로 더 협력관계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사서교사가 혼자서 도서관을 운영할 수 있는 전문지식을 갖추고 있기 때문에 오히려 도서관을 담당하는 일반교사간의 협력, 공공도서관으로부터의 협력을 받을 필요가 없기 때문이 아닌가 추측된다.

4. 학교도서관 운영 현황

가. 예산

(1) 예산 결정방식과 예산항목

학교도서관의 예산결정 방식을 분석하면 〈표 12〉와 같다. 전체적으로 도서관 담당자의 요청을

7) 교내에 도서관 관련 위원회가 조직된 비율이 89.6%인데 반해 도서관 담당교사의 교내 각종 위원회 가입 비율이 43% 이하인 점에 대해서는 질문에 대한 오해 가능성 등 다소 의아한 점이 있다.

반영하는 경우가 43.8%로 가장 높다. 학교기본운영경비의 정해진 비율로 결정, 행정실에서 결정, 또는 교장재량으로 결정하는 학교가 각각 41.7%, 11.5%, 3.1%이다. 사서교사 학교의 57.4%, 일반교사 학교의 30.6%가 운영자의 요구를 기준으로 예산을 결정하므로 사서교사의 예산요청이 일반교사에 비해 훨씬 높게 반영되고 있다.

일반교사 학교의 경우 기본운영경비 및 행정실에서 결정하는 비율이 각각 53.1%, 14.3%로 사서교사 학교의 29.8%, 8.5%에 비해 상대적으로 높다.

〈표 12〉 예산 결정방식

구분	담당자의 요청		기본운영경비		교장재량		행정실	
	사서교사	일반교사	사서교사	일반교사	사서교사	일반교사	사서교사	일반교사
초	9	5	9	10	1	1	4	4
중	10	7	2	9	1	0	0	1
고	8	3	3	7	0	0	0	2
합(%)	27(57.4)	15(30.6)	14(29.8)	26(53.1)	2(4.3)	1(2.0)	4(8.5)	7(14.3)

예산의 항목은 〈표 13〉과 같이 구성되어 있다.

〈표 13〉 예산항목 구성

구분	자료구입비		자료/운영비		자료/운영/기타	
	사서교사	일반교사	사서교사	일반교사	사서교사	일반교사
초	3	4	7	11	12	5
중	0	2	4	8	8	7
고	0	6	4	3	7	3
합(%)	3(6.7)	12(24.5)	15(33.3)	22(44.9)	27(60.0)	15(30.6)

※ 초등과 중학교 사서교사에 각 1개 결측치 있음.

전체 응답 94(사서교사 45, 일반교사 49) 중에서 자료구입, 운영경비, 그리고 기타 활동비를 합하여 예산을 작성하는 비율은 사서교사의 경우 60.0%, 일반교사의 경우 30.6%이다. 자료구입비만으로 예산이 작성되는 경우는 사서교사의 경우 6.7%에 불과한 반면 일반교사의 경우 24.5%에 달한다.

(2) 예산의 연도별 추이

〈표 14〉 학생 1인당 평균 도서관 예산의 연도별 추이

(단위: 원)

구 분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사서교사 (학교수)	일반교사 (학교수)	사서교사 (학교수)	일반교사 (학교수)	사서교사 (학교수)	일반교사 (학교수)
2003	7,792(6)	8,858(3)	8,684(6)	18,092(3)	11,087(3)	7,830(1)
2004	6,708(14)	7,679(9)	6,918(10)	9,878(6)	9,956(6)	38,890(5)
2005	6,160(17)	4,790(12)	6,923(11)	7,582(8)	10,750(8)	17,714(5)
2006	11,170(20)	5,020(17)	14,097(13)	12,112(13)	14,333(10)	17,262(6)

※ 2004년도에 두 개 고등학교가 활성화 대상학교로 전체적인 평균이異常적으로 높아졌다.

연도별 예산의 추이를 사서교사와 일반교사 학교로 나누어 분석하여 사서교사가 운영하는 학교의 경우 전문, 전담인력의 활동이 더 많은 예산을 꾸준하게 증가시키는 효과를 가지는가 하는 점을 확인해 보았다. 2003년과 2004년도의 예산에는 당해 연도에 활성화된 학교가 포함되어 있으므로 큰 의미를 둘 수 없다. 2005년과 2006년의 예산에서 초·중학교의 경우 사서교사 학교에서 예산의 증가추이가 뚜렷하다. 고등학교에서는 사서교사 학교에서 예산의 증가는 뚜렷하지만 학생 1인당 예산은 일반교사 학교에 비하여 저조하다. 그 원인을 본 분석에서 찾아내기는 어려우나 아직까지 학교도서관의 상태가 안정기에 접어들지 못하였기 때문에 각 학교의 도서관 예산이 상황에 따라 크게 영향을 받거나 조사 대상 학교의 수가 적기 때문에 한 두 학교의 이상(異常) 예산이 평균치에 크게 영향을 미치기 때문이 아닌가 추측된다. 향후의 추이를 지켜볼 필요가 있다.

나. 장서 현황

(1) 장서 수

2006년도의 장서 현황은 〈표 15〉에서 보듯이 모든 학교급에서 사서교사 학교의 학생 1인당 평균 장서수가 일반교사 학교의 경우보다 많으며 상급학교로 올라 갈수록 차이가 더 많이 벌어지고 있다. 일반교사 학교의 경우 근소한 차이기는 하지만 중학교의 학생 1인당 평균 장서수가 초등학교 보다 적다. 아동 청소년의 인지발달 및 교양, 정보요구 등의 측면에서 볼 때 이러한 상황은 극히 비정상적이며 시정되어야 할 부분이다.

〈표 15〉 2006년도 학생 1인당 평균 장서수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사서교사	일반교사	사서교사	일반교사	사서교사	일반교사
11.1	10.8	12.9	9.3	13.3	10.7

(2) 주제별 장서구성

한국도서관협회의 한국도서관기준⁸⁾에는 초·중·고등학교 도서관 장서의 주제별 구성 비율이 제시되어 있다. 각 학교급별 장서가 이 기준에 얼마나 합치하고 있는가, 그리고 사서교사 도서관과 일반교사 도서관의 주제별 장서 구성 비율을 분석하였다.

〈표 16〉 초등학교 장서구성 비율(%)의 비교

구분	총류	철학	종교	사회과학	순수과학	기술과학	예술	어학	문학	역사	그림책
기준	4	2	2	8	13	7	5	3	25	16	15
사서교사	5.1 (1.1)	2.3 (0.3)	1.2 (0.8)	6.7 (1.3)	13.2 (0.2)	3.0 (4.0)	3.0 (2.0)	2.5 (0.5)	50.3 (10.3)	12.7 (3.3)	
일반교사	4.8 (0.8)	2.6 (0.6)	1.9 (0.1)	7.4 (0.6)	12.6 (0.4)	3.3 (3.7)	2.6 (2.4)	3.6 (0.6)	47.1 (7.1)	13.5 (2.5)	

※ 괄호의 숫자는 기준에 비해 부족하거나 과도한 부분 즉 왜곡된 비율의 절대값을 의미한다. 그림책은 문학에 포함하여 문학을 40%로 잡았다.

〈표 17〉 중학교 장서구성 비율(%)의 비교

구분	총류	철학	종교	사회과학	순수과학	기술과학	예술	어학	문학	역사
기준	5	5	3	10	15	8	6	4	27	17
사서교사	5.4 (0.4)	5.0 (0.0)	1.8 (1.2)	7.8 (2.2)	9.0 (6.0)	3.7 (4.3)	5.5 (0.5)	4.3 (0.3)	47.2 (20.2)	10.4 (6.6)
일반교사	9.6 (4.6)	3.8 (1.2)	2.1 (0.9)	7.0 (3.0)	7.8 (7.2)	2.8 (5.2)	3.7 (2.3)	4.6 (0.6)	46.8 (19.8)	11.4 (5.6)

〈표 18〉 고등학교 장서구성 비율(%)의 비교

구분	총류	철학	종교	사회과학	순수과학	기술과학	예술	어학	문학	역사
기준	6	6	4	10	15	9	7	8	25	10
사서교사	6.8 (0.8)	5.2 (0.8)	2.2 (1.8)	10.0 (0.0)	7.0 (8.0)	2.8 (6.2)	4.4 (2.6)	3.8 (4.2)	46.4 (21.4)	9.7 (0.3)
일반교사	4.6 (1.4)	6.0 (0.0)	1.8 (2.2)	8.4 (1.6)	8.4 (6.6)	2.5 (6.5)	4.8 (2.2)	3.5 (4.5)	49.0 (24.0)	10.0 (0.0)

〈표 16, 17, 18〉에서 초등학교 도서관의 장서구성 왜곡 비율은 사서교사 도서관 23.8, 일반교사 도서관 18.8, 중학교 사서교사 도서관 41.7, 일반교사 도서관 50.4, 고등학교 사서교사 도서관 46.1, 일반교사 도서관 49.0이다. 중학교와 고등학교에서는 사서교사 도서관의 왜곡비율이 낮은 편이지만, 초등학교의 경우에는 사서교사 학교의 왜곡비율이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모든 학교급에서

8) 한국도서관협회 도서관기준작성특별위원회. 한국도서관기준(서울: 한국도서관협회, 2003)

왜곡의 가장 큰 요인은 문학 자료의 비율이 과도한 것이며 초등학교에서는 기술과학, 역사, 예술 분야, 중학교에서는 순수과학, 역사, 기술과학 고등학교에서는 순수과학, 기술과학, 어학 분야의 자료가 심각하게 부족한 것으로 분석되었다. 사서교사를 포함하여 모든 도서관 담당교사는 자료선택 시 주제별 균형에 더 많은 관심을 기울여야 할 필요가 있다.

(3) 연속간행물 구입종수

연속간행물은 학생들의 흥미나 관심분야에 관한 최신의 정보를 제공할 수 있는 매체다. 그러므로 연속간행물을 얼마나 다양하게 제공하는지는 이용자에 대한 서비스의 수준이라는 측면에서 단행본보다 더욱 중요하다고 할 수 있다. 연속간행물은 관리에 있어서도 세심한 관심이 필요하다. 전체 학교 중 22.9%(22개)에는 구입하는 연속간행물이 전혀 없는 것으로 집계되었다. 그 내역은 초등학교 14개교, 중학교 5개교, 고등학교 3개교로 초등학교의 경우 32.6%가 1종도 구입하지 않고 있다. 이 중 사서교사 학교는 중학교 1개, 초등학교 2개, 그리고 나머지 19개 학교는 전부 일반교사 학교였다.

학교급별 평균 잡지구입 종수를 비교해보면 <표 19>와 같다. 사서교사 도서관은 모든 학교급에서 일반교사 도서관보다 많은 종수를 구입하고 있으며 초등학교와 고등학교에서 더 큰 차이를 보여주고 있다.

<표 19> 연속간행물 평균 구입 종수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사서교사	일반교사	사서교사	일반교사	사서교사	일반교사
3.8	1.5	5.9	4.6	11.0	6.2

(4) 자료 선정방법과 구입횟수

자료선정 방법을 중복 선택하도록 조사한 결과, 사서교사의 83.0%, 일반교사의 44.9%가 직접 자료를 선정하고 있으며 사서교사의 66.0%, 일반교사의 57.1%가 교사들의 협력을 얻고 있다. 학생들의 희망도서를 자료구입에 반영하는 비율은 사서교사의 경우 83.0%, 일반교사의 경우 57.1%이다. 도서/자료 선정위원회의 활동은 사서교사 도서관의 경우 66.0%, 일반교사도서관의 경우 57.1%가 영향을 미치고 있다. 그리고 일반교사의 경우 서점에 위임하는 경우가 중, 고등학교에 각각 1개씩 있다. 사서교사가 직접 자료를 선정하며 교사들의 협력을 얻거나 학생들의 요청을 반영하는 비율이 일반교사에 비해 훨씬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표 20〉 자료 선정방법

구분	직접		교사협력		선정위원회		학생희망		서점위임	
	사서 교사	일반 교사	사서 교사	일반 교사	사서 교사	일반 교사	사서 교사	일반 교사	사서 교사	일반 교사
초	19	3	11	5	13	12	17	5	0	0
중	11	12	10	13	10	10	12	13	0	1
고	9	7	10	10	8	6	10	10	0	1
합 (%)	39 (83.0)	22 (44.9)	31 (66.0)	28 (57.1)	31 (66.0)	28 (57.1)	39 (83.0)	28 (57.1)	0 (0.0)	2 (4.1)

자료를 얼마나 빈번하게 구입하는가는 이용자들의 요구 및 출판물의 신속한 공급을 의미하는 도서관의 중요한 서비스 요소이다.

〈표 21〉 자료 구입횟수

구분	년 1회		학기에 1회		년 4회		월 1회		필요할 때 마다	
	사서 교사	일반 교사	사서 교사	일반 교사	사서 교사	일반 교사	사서 교사	일반 교사	사서 교사	일반 교사
초	1	8	15	10	4	0	1	0	2	2
중	0	3	7	10	2	0	0	0	4	4
고	0	2	5	7	3	1	0	0	3	2
합 (%)	1 (2.1)	13 (26.5)	27 (57.4)	27 (55.1)	9 (19.1)	1 (2.0)	1 (2.1)	0 (0.0)	9 (19.1)	8 (16.3)

〈표 21〉은 전체적으로 한 학기에 1회 구입하는 도서관이 가장 많으며 54개 학교가 있다. 연 1회 구입하는 도서관은 사서교사의 경우 1곳에 불과하지만 일반교사 도서관의 경우 26.5%를 차지하고 있다. 연 4회 이상 구입하는 도서관 28개 중 사서교사 도서관이 67.9%이다. 자료의 선정방법과 구입횟수의 분석에서 사서교사가 훨씬 더 이용자에 밀착되고 신속한 서비스를 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5) 교과 관련 비도서 자료의 구입과 관리

교과와 관련된 비도서의 경우 전교적 차원에서 정보자원관리 체계를 구축하는 것은 학교의 자산 관리의 측면에서나 다른 교과에서의 참고 등을 위해서 필요하다. 구입과 관리의 실태를 중복선택으로 조사하였다. 전체적으로 비도서는 관련 부서 및 교과에서 구입하는 경우가 가장 많다. 한 가지 특이한 현상은 일반교사가 운영하는 학교에서는 교사 개인이 구입하는 비율(19.4%)이 상당히 높은 반면에 사서교사가 있는 경우에는 도서관에서 구입하는 비율(34.8%)이 상당히 높다는 점이다. 이것은 사서교사가 있는 경우 교사 개인이 구입하지 않고 사서교사에게 구입을 의뢰하는 비율이

높은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표 22 참조).

〈표 22〉 교과 관련 비도서 자료의 구입

구분	교사 개인		관련 교과		관련 부서		도서관	
	사서교사	일반교사	사서교사	일반교사	사서교사	일반교사	사서교사	일반교사
초	2	2	4	0	13	16	8	3
중	0	7	8	10	6	3	7	3
고	0	3	6	6	6	5	9	4
합 (%)	2 (2.9)	12 (19.4)	18 (26.1)	16 (25.8)	25 (36.2)	24 (38.7)	24 (34.8)	10 (16.1)

그러면 구입된 비도서 자료의 관리는 어디서 하고 있는가? 〈표 23〉을 보면 전체적으로 도서관에서 관리하는 비율이 39.2%, 부서가 30.0%, 교과 19.2%, 개인 11.5%이다.

그런데 사서교사가 있는 경우에 도서관에서 관리하는 비율은 46.4%이며, 일반교사의 경우 31.1%로 사서교사가 도서관을 운영하는 경우 교과 관련 자료로서 관련 교과 또는 부서에서 구입한 경우라 할지라도 도서관에서 통합 관리하는 비율이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난다. 구입에서와 마찬가지로 관리에 있어서도 일반교사가 운영하는 경우 개인이 관리하는 비율이 높게 나타나며 도서관이 관리하는 비율이 상대적으로 낮게 나타나고 있다.

〈표 23〉 교과 관련 비도서 자료의 관리

구분	교사 개인		관련 교과		관련 부서		도서관	
	사서교사	일반교사	사서교사	일반교사	사서교사	일반교사	사서교사	일반교사
초	0	5	4	2	12	10	14	4
중	1	6	3	7	9	2	8	6
고	0	3	4	5	4	2	10	9
합 (%)	1 (1.4)	14 (23.0)	11 (15.9)	14 (23.0)	25 (36.2)	14 (23.0)	32 (46.4)	19 (31.1)

(6) 자료조직

사서교사의 경우 93.6%가 직접 분류 목록하고 있다. 이에 비해 일반교사의 경우 18.4%가 직접 하며 71.4%는 업체, 그리고 나머지 10.2%는 도우미 또는 보조원에게 의존하고 있다. DLS의 이용으로 목록정보를 공유할 수 있다고는 하나 업체, 도우미, 보조원 등에 의존하여 목록의 질을 보장할 수 없다면 공유는 의미가 없게 된다. 전체 응답학교 중 44.8%의 학교가 도우미/보조원 또는 업체에 목록을 의존하고 있는 상황에서 과연 목록의 질적 수준을 어떻게 유지할 수 있을지 심각하게

고려하여야 할 사항이다.9)

〈표 24〉 자료조직 담당자

구분	직접		도우미/보조원		용역업체		계
	사서교사	일반교사	사서교사	일반교사	사서교사	일반교사	
초	22	7	0	1	1	12	43
중	11	1	0	2	2	14	30
고	11	1	0	2	0	9	23
합(%)	44(93.6)	9(18.4)	0(0.0)	5(10.2)	3(6.4)	35(71.4)	96

(7) 폐기

유용하고 신선한 자료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적절한 폐기가 지속적으로 이루어져야 한다. 활성화 이후에 폐기가 어떻게 실시되고 있는지 조사하였다.

〈표 25〉 활성화 이후 자료 폐기 횟수

구분	없다		1회		2회		연 1회		수시로		계
	사서교사	일반교사	사서교사	일반교사	사서교사	일반교사	사서교사	일반교사	사서교사	일반교사	
초	11	7	4	3	3	3	5	7	0	0	43
중	4	6	4	4	4	2	1	3	0	2	30
고	6	8	3	3	1	0	1	1	0	0	23
합(%)	21 (44.7)	21 (42.9)	11 (23.4)	10 (20.4)	8 (17.0)	5 (10.2)	7 (14.9)	11 (22.4)	0 (0.0)	2 (4.1)	96

경상북도 교육청은 활성화 사업 중에 이용가치가 낮거나 손상된 자료에 대해 적극적으로 폐기할 것을 권장하고 있다. 그러나 활성화 이후 자료를 폐기한 적이 없는 학교가 42개로 43.3%이다. 2003, 2004년에 활성화해서 2006년 조사 시점까지는 도서관 운영기간이 실질적으로 2년 6개월에서 1년 6개월 정도이므로 활성화 이후 2회 실시한 것과 연 1회 사이에는 차이가 없을 것으로 생각된다. 이 경우에 해당되는 도서관은 사서교사 도서관 15개, 일반교사 도서관 16개로 각각 31.9%, 32.7%로 비슷한 비율을 보이고 있다. 그러므로 폐기에 있어서는 사서교사와 일반교사 간에 크게 차이가 없는 것으로 보인다. 단 일반교사가 운영하는 중학교에서 수시로 폐기한다는 도서관이 2개 있다.

9) 직접 분류 목록하는 사서교사의 경우에도 필요에 따라 자료구입 시 업체에 의뢰하는 경우가 있다고 한다. 업체에서 제공하는 목록정보의 질은 제공시기에 따라 다르며 사서교사의 경우 검수한 후 확인하고 목록이 잘못되었을 경우 업체에 항의하고 수정하여 쓴다고 한다. 이러한 수정, 개선 작업을 일반교사의 경우에도 실시하는지는 불확실하다.

5. 학교도서관 서비스

가. 교사에 대한 서비스

(1) 교사의 도서관 이용정도

전체 응답 86개 중에서 일주일 동안 교사가 학교도서관을 전혀 이용하지 않는 경우가 14교(16.1%), 한 번 이용이 27교(31.0%)로 80%의 학교가 5회 이하로 이용하고 있다. 교사의 이용횟수에서 특징적인 것은 사서교사가 운영하는 도서관에 교사의 이용이 더 빈번하며 교사의 이용이 전혀 없는 도서관은 없는 반면에 일반교사가 운영하는 도서관 47개 중 교사의 이용이 전혀 없는 곳이 14교(29.8%)나 되며 이용빈도에 있어서도 사서교사 도서관에 비해 저조하다.¹⁰⁾

〈표 26〉 교사의 이용정도(주 평균)

	0회		1-2회		3-5회		6-10회		11회 이상	
	사서	일반	사서	일반	사서	일반	사서	일반	사서	일반
초	0	5	10	11	5	3	2	1	0	0
중	0	5	3	3	4	2	2	2	3	3
고	0	4	5	5	2	1	0	1	3	1
합 (%)	0 (0.0)	14 (29.8)	18 (46.2)	19 (40.4)	11 (28.2)	6 (12.8)	4 (10.3)	4 (8.5)	6 (15.4)	4 (8.5)

※ 결측치는 10이며 사서교사 학교 8개, 일반교사 학교 2개임.

(2) 교사가 이용하는 자료

학교도서관을 이용하는 교사는 어떤 자료를 주로 이용하는지 도서관 담당교사가 중복선택한 것을 학교급별로 분석해보면 〈표 27〉과 같다.

〈표 27〉 교사가 이용하는 자료의 종류

구 분	개인적 읽을거리		교과학습		학생과제		자녀		장학자료	
	사서 교사	일반 교사	사서 교사	일반 교사	사서 교사	일반 교사	사서 교사	일반 교사	사서 교사	일반 교사
초	20	14	7	7	3	4	5	3	3	0
중	10	13	10	6	0	0	5	2	1	1
고	11	9	3	5	1	0	3	0	0	0
합	41	36	20	18	4	4	13	5	4	1

10) 결측치를 모두 0회에 귀속시킬 경우 사서교사 도서관에서 동료교사의 이용이 전혀 없는 학교는 8개 17%이며, 일반교사 학교는 16개 32.7%이다.

전체 자료이용에서 개인적인 읽을거리가 차지하는 비율이 52.7%이며, 자녀를 위한 자료이용까지 포함하면 개인적 용도가 65.1%를 차지하고 있다. 그에 비해 교과학습과 관련된 자료 이용은 26.0%, 학생들의 과제와 관련한 이용은 5.5%, 합하면 31.5%에 지나지 않는다.

교사의 개인적 이용 목적이 문제가 되는 것은 아니지만 교수 학습센터로서의 학교도서관의 본질적 이용에 소극적인 것은 분명한 문제이다. 초등학교가 중등학교에 비해 과제와 관련된 자료 이용이 많은 한편 중학교에서는 교과학습자료 이용이 비교적 많은 편이다. 어떤 목적에서든지 사서교사가 있는 학교의 교사들이 일반교사의 학교에서보다 도서관 이용에 있어서 활발하다는 것은 <표 26> <표 27>에서 확실한 것으로 분석된다.

(3) 교사를 위한 도서관 서비스

<표 28> 교사를 위한 도서관 서비스의 종류

구 분	자료신청		교과자료소개		수업자료제공		도서관/자료이용교육		학생이용협조	
	사서교사	일반교사	사서교사	일반교사	사서교사	일반교사	사서교사	일반교사	사서교사	일반교사
초	15	4	9	1	5	2	4	0	14	4
중	12	7	7	4	8	5	7	5	9	9
고	6	3	3	0	3	1	3	0	6	1
합 (%)	33 (70.2)	14 (28.6)	19 (40.4)	5 (10.2)	16 (34.0)	8 (16.3)	14 (29.7)	5 (10.2)	29 (61.7)	14 (28.6)

※ %는 각 교사 군에서 해당 서비스를 제공하는 비율임.

<표 28>에서 도서관 담당교사가 동료교사들에게 하는 서비스를 중복선택하도록 조사한 것을 분석하였다. 사서교사가 동료교사들을 위해 가장 많이 제공하고 있는 서비스부터 살펴보면 자료신청(70.2%)을 받고, 교사의 요청에 따라 학생들의 자료 이용지도(61.7%)를 하고, 교과관련 자료를 소개(40.4%)하고, 수업자료를 제공(34.0%)하고, 교사에게 도서관/자료이용을 지도(29.7%)하는 순이다. 일반교사가 동료교사에게 서비스를 제공하는 비율은 사서교사에 비해 훨씬 낮으며 자료신청 접수(28.6%), 학생이용 지도(28.6%), 수업자료 제공(16.3%), 교과자료 소개(10.2%), 교사의 도서관/자료 이용지도(10.2%)의 순이다.

모든 영역에서 사서교사 학교에 비해 일반교사가 운영하는 학교에서는 절반 이하의 활동 밖에 하지 못하고 있다. 도서관 담당자의 교사에 대한 서비스 정도는 교사들의 요구가 어느 정도인가에 따라서 매우 가변적일 수 있는데 교육환경이 바뀌어 정보활용의 필요성이 많아지면 차이는 더 벌어질 것으로 예상된다.

이 문제를 <III.2.나>도서관 담당교사의 역할에 대한 인식 비교와 <III.3.나>의 도서관 담당교사와

동료교사들의 협력관계에 대한 분석내용을 종합해보면 일반교사가 도서관을 운영할 경우 동일 교과(또는 초등학교의 경우 동일 학년)를 통해 형성되는 인간적 유대관계라든가 수업교사로서의 연대의식에 의해 도서관 업무나 서비스에 있어서도 사서교사보다 동료교사들과의 협력에 잇점이 있을 것이라는 막연한 추측은 전혀 근거 없음이 확실하다.

나. 학생들에 대한 서비스

(1) 대출 현황

대출 책 수는 2권인 도서관이 68.8%(66개), 3권 16.7%(16개), 1권 12.5%(12개), 4권 1개 교 그리고 중학교 한 곳은 30권을 대출하고 있다. 대출기간은 3일에서 15일 까지 다양하지만 학교급, 교사군에 관계없이 일주일인 84.4%(81개)로 압도적이다. 학생들의 대출 추이를 분석해보면 <표 29>과 같다.

<표 29> 학생 1인당 대출책 수의 추이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사서교사	일반교사	사서교사	일반교사	사서교사	일반교사
2003	8.9	9.5	7.0	10.4	5.4	.
2004	14.7	7.8	13.2	6.1	11.5	5.8
2005	20.5	11.8	13.4	7.9	13.3	11.7
2006(10월 현재)	21.9	14.9	12.7	8.3	10.7	11.3

모든 학교급에서 2003년도를 제외하고는 사서교사 학교 학생들의 대출이 훨씬 많다. 2006년도 고등학교를 제외하면 사서교사 학교의 학생들은 일반교사 학교의 학생보다 1.5~2배 정도 더 많은 책을 대출하고 있다. 이 현상은 사서교사가 하루 8시간 도서관을 개방하기 때문에 일반교사가 운영하는 경우와 비교하여 당연한 현상이라고 할 수 있다. 학생들의 독서와 정보활용의 기회를 보장하기 위해서는 사서교사의 배치로 이 당연한 현상이 제도적으로 보장되어야 할 필요가 있다.

(2) 도서관 이용지도

(가) 전체 이용지도

총 응답 85개 중 전교생을 위한 도서관 이용지도는 신입생을 대상으로 실시하는 학교가 41교, 전교생을 대상으로 하는 학교가 34교, 교사의 요청에 따라 수시로 실시하는 학교가 4교, 유인물이나 방송조회로 실시하는 학교가 6교 있다. 이용지도에 있어서 하나의 특징은 초등학교의 경우는 전교생을 대상으로 학급단위로 학기 초에 실시하는 것이 가장 보편적이며, 중등학교는 신입생을 대상으로 학급단위로 학기 초에 실시하는 것이 일반적이라는 점이다. 일반교사와 사서교사간의 차이는 크지 않다. 단 유인물 또는 방송조회로 이용지도를 하는 6교(초등 3, 중등 3)는 모두 일반교

사가 운영하는 학교이다.

(나) 개인별 이용지도

학생 개인에 대한 서비스로서 독서상담 및 도서관/자료 이용지도를 실시하는지 조사하였다. 두 영역에서 모두 사서교사의 활동이 더 많으며 독서상담보다는 도서관/자료 이용지도, 그리고 학교 급별로는 초등학교 사서교사의 활동이 활발하다. 실시 횟수에 있어서 독서상담에서는 중학교 사서교사의 활동과 도서관/자료이용지도에서는 초등학교 사서교사의 활동이 두드러지게 활발하다.

〈표 30〉 학생에 대한 개인별 서비스

구 분	독서상담		도서관/자료이용지도	
	사서교사(월평균횟수)	일반교사(월평균횟수)	사서교사(월평균횟수)	일반교사(월평균횟수)
초	18(6.1)	11(4.9)	20(9.8)	13(3.2)
중	13(14.5)	11(4.8)	12(6.8)	9(3.1)
고	8(6.6)	5(3.0)	10(2.9)	4(2.7)
합(%)	39(83.0)	27(55.1)	42(89.4)	26(53.1)

(3) 도서관 활용수업

96개교 중 92개교가 도서관 활용수업을 실시하고 있다고 응답하였다. 도서관 활용수업의 활용 수준은 〈표 31〉과 같다. 사서교사 학교 중 1교, 일반교사 학교 중 3교가 도서관 활용수업을 하지 않고 있다.

〈표 31〉 도서관 활용수업의 유형

구 분	공 간		기자재		자 료		기자재 및 자료	
	사서교사	일반교사	사서교사	일반교사	사서교사	일반교사	사서교사	일반교사
초	2	1	0	0	6	6	14	12
중	1	0	2	5	1	2	9	9
고	0	2	1	3	2	0	8	6
합(%)	3(6.5)	3(6.5)	3(6.5)	8(17.4)	9(19.6)	8(17.4)	31(67.4)	27(58.7)

일반교사의 경우 도서관에 비치된 기자재만 활용하는 수업이 사서교사 학교에 비해 높은 편이고 전체적으로 사서교사가 있는 학교의 활용수준이 다소 높은 편이지만 큰 차이는 없다. 초등학교에서는 자료만 이용하는 비율이 높은 반면에 중등학교에서는 기자재만 이용하는 비율이 높다. 도서관 활용수업 유형으로 기자재와 자료를 함께 이용하는 수준의 비율이 전체적으로 63.0%이며 초등학교에서는 63.4%(41개 중 26개), 중학교 62.1%(29개 중 18개), 고등학교 63.6%(22개 중 14개)로

학교급별로 매우 비슷한 수준으로 이용하고 있다.

(4) 방학 중 도서관 개방

개방하는 학교가 59교로 전체의 61.5%인데 초등학교는 43개 중 34개교가 개방하며 사서교사 학교의 82.6%, 일반교사 학교의 75.0%, 중학교의 경우 30교 중 11교가 개관하는데 사서교사 학교의 30.8%, 일반교사 학교의 41.2% 고등학교는 23교 중 14교가 개관하며 사서교사 학교의 63.6%, 일반교사 학교의 58.3%가 개관하고 있다. 도서관 개방 비율은 초등학교와 고등학교에서는 사서교사 학교, 중학교에서는 일반교사 학교가 높다.

개방기간은 59학교 중 31교(52.5%)가 일주일 미만이고 2주와 4주가 각각 10개교이며 5주간 개방하는 학교가 일반교사가 운영하는 초등과 중학교에 각각 1개씩 있다.

6. 학교도서관 행사

96개교 중 전혀 행사를 하지 않는 학교가 3교, 최다 24회 개최한 학교가 1교 있다. 전혀 행사를 하지 않은 3교는 사서교사 초등 1교, 일반교사 초·중학교 각 1교씩이다.

〈표 32〉 도서관 행사 실시 학교와 횟수

구 분	사서교사(연 평균 행사 수)	일반교사(연 평균 행사 수)
초	22(6.7)	19(4.2)
중	13(5.8)	16(3.8)
고	11(3.9)	12(1.1)
합	46	47

중복선택 및 자유기술방식으로 행사의 종류와 횟수를 조사하였다. 50% 이상의 학교가 실시하는 행사로는 다독자 시상(90.2%), 독후감 쓰기(76.3%), 독서퀴즈(71.2%)가 있다. 이 외에 아침독서, 책속 보물찾기, 자료전시회, 정보검색대회, 문학기행, 책속 보물찾기, 저자초청 강연, 독서환경 콘테스트, 독서교실, 독서 골든벨, 도서 기증 및 교환전, 독서 논술대회, 책의 날, 독서의 달, 독서신문 만들기, 책갈피 증정, 불 밝히는 도서관 등 다양한 행사가 있다. 모든 학교급에서 사서교사가 1.5배 이상 더 많은 행사를 하고 있다.

도서관 행사가 학생들의 독서활동이나 도서관 이용에 실질적인 향상을 가져오는가에 대한 질문에 대해 전체 응답자 93명 중 83명인 89.2%가 그렇다고 답하였으며 가장 효과가 크다고 생각하는 행사로는 독서퀴즈, 다독자 시상, 아침독서, 독서 감상문 등의 순으로 답하였다.

교내에서 도서관을 홍보하는 방법으로는 학교 홈페이지가 가장 보편적인 방법이며 소식지, 게시

판, 교내방송 등을 이용하고 있다. 그러나 사서교사가 있는 중학교에서는 소식지가 가장 많이 활용되는 홍보도구인 것으로 조사되었다.

7. 정보기술의 사용

가. DLS의 사용

DLS의 사용년도는 응답한 91교 중 78교(85.7%)가 2003년(37교)과 2004년(41교)부터 사용하고 있었다. 나머지 학교는 2000년부터 2002년까지 4교, 2005년 8교, 2006년 1교로 분포되어 있다.

DLS는 학교도서관 업무를 표준화하여 도서관 담당교사의 업무부담을 경감시킬 뿐 아니라 향후 네트워크를 통한 다양한 정보의 공유를 목표로 개발 보급되고 있다. DLS의 이용은 사서교사에게도 중요하지만 업무 부담과 전문 지식의 부족이라는 문제를 완화한다는 점에서 일반교사의 활용이 더욱 큰 효과를 가져올 수 있다. 그러나 DLS의 이용교육 경험에 대해서는 응답자(93명, 결측치 일반교사 3) 중 사서교사의 89.4%가 DLS교육을 받은 반면에 일반교사는 58.7%만이 교육을 받은 경험이 있다. 결측치를 미교육에 포함시킬 경우 일반교사의 교육수료 비율은 55.1%로 낮아진다.

〈표 33〉 DLS 이용교육 경험

구 분	사서교사	일반교사
초	21	12
중	13	10
고	8	5
합	42	27

학교도서관에서 DLS를 사용하는 목적은 목록정보를 다운로드받는 것이 가장 일반적이지만 그 외에도 도서관 담당자가 다양한 목적으로 이용할 수 있다. 먼저 목록정보 이용 이외에 DLS를 사용한 적이 있는지에 관한 질문에서 응답자 93명 중 75명(80.6%)이 있다고 답하였다. 이용 내역은 〈표 34〉와 같다.

〈표 34〉 목록 이외의 DLS 이용 목적

구분	대출현황분석		인기자료 선정		장서구성 현황분석		자료구입에 참고	
	사서	일반	사서	일반	사서	일반	사서	일반
초	20	15	14	4	19	8	11	6
중	13	9	12	5	12	5	11	7
고	8	5	8	0	6	2	4	2
합(%)	41(87.2)	29(63.0)	32(68.1)	9(19.6)	37(78.7)	15(32.6)	26(55.3)	15(32.6)

47명의 사서교사와 46명의 일반교사의 응답을 비교해보면 두 교사 집단 모두 대출자료 분석에 가장 많이 활용하고 있는데 사서교사의 87.2% 일반교사의 63.0%가 활용한다. 다음 순위로는 사서교사의 경우 장서구성 분석(78.7%), 인기자료 선정(68.1%), 자료구입에 참고(55.3%)로 이어진다. 일반교사의 경우에는 장서구성 현황을 분석(32.6%)과 자료구입에 참고(32.6%), 그리고 인기자료 선정(19.6%)으로 이어진다. 대출분석과 장서구성 현황분석이 도서관의 운영을 위해 필요한 것이라면 인기자료 선정은 학생들과 호흡을 함께하기 위해 필요한 활동이라고 할 수 있다. 이상의 분석에서 도서관의 일상적인 운영에 있어서나 학생들의 자료이용 경향을 파악하는 일에 사서교사의 활동이 훨씬 적극적임을 알 수 있다.

DLS 사용 목적과 함께 사용빈도를 분석해보면 두 집단 간의 차이는 더욱 뚜렷하다. 초등학교 일반교사의 경우 목록 정보 이외의 목적으로 활용하는 연 평균 횟수는 1~48회에 분포되어 있는 반면 사서교사의 경우 3~240회에 분포되어 있다. 중학교의 경우 일반교사는 1~30회에 분포되어 있는 반면 사서교사의 경우 5~120에, 고등학교의 경우 일반교사가 4~8회인 반면 사서교사의 이용은 2~60회에 분포되어 있다. 사서교사가 일반교사에 비해 평균적으로 4~5배 빈번하게 활용하고 있다.

사서교사의 적극적인 DLS 활용은 DLS 이용에 대해 직간접적인 지원과 개선을 요청하는 활동에서도 잘 드러나고 있다. 사서교사 47명 중 29명(61.7%), 일반교사 46명 중 15명(32.6%)이 도서관업무와 관련하여 DLS 이용에 대한 지원과 개선을 요청한 경험을 갖고 있다. DLS의 보급으로 학교도서관 업무의 표준화와 정보의 공유라는 목표를 달성하려고 한다면 일반교사들의 이용과 이용교육을 독려하고 지원할 필요가 있다. 그렇지 않으면 목록정보 이용의 수준을 넘어 진정한 도서관 활동의 향상이라는 소기의 효과를 얻기는 어려울 것이다.

나. 도서관 홈페이지의 활용

응답한 95개교(사서교사 47, 일반교사 48) 중 도서관 홈페이지가 있는 학교가 81교, 없는 학교가 14교이다. 홈페이지를 통해서 학생들이 자료를 검색하는 이외에 도서관에서 학습정보와 관련하여 어떤 서비스를 제공하는지를 알아보기 위해 기존의 학습정보 사이트에 대한 링크와 도서관에서 자체 제작한 학습정보를 제공하는지를 조사하였다.

〈표 35〉 도서관 홈페이지의 활용정도

구분	홈페이지 있음		홈페이지 없음		학습정보 사이트 링크		자체 제작 학습정보 제공	
	사서교사	일반교사	사서교사	일반교사	사서교사	일반교사	사서교사	일반교사
초	21	14	2	6	12	8	5	2
중	13	13	0	3	8	5	1	2
고	11	9	0	3	3	3	3	1
합(%)	45(95.7)	36(75.0)	2(4.3)	12(25.0)	23(48.9)	16(33.3)	9(19.1)	5(10.4)

사서교사 도서관의 95.7%가 홈페이지를 갖추고 있는 반면 일반교사 도서관은 75.0%만이 홈페이지가 있다. 사서교사 도서관의 48.9%, 일반교사 도서관의 33.3%가 기존의 학습정보 사이트에 링크를 제공하고 있으며 사서교사의 19.1%, 일반교사의 10.4%가 자관에서 제작한 학습정보를 제공하고 있다.

IV. 맺는말

본 연구는 교육인적자원부가 2003년에서 2007년까지 실시하고 있는 학교도서관 활성화 사업을 통해서 2003년과 2004년에 활성화된 경북지역의 학교도서관을 중심으로 도서관 전담인력의 차이에 따른 도서관 운영과 서비스의 효과 차이를 분석하였다. 즉 본 연구는 현재 학교도서관을 담당하고 있는 사서교사와 일반교사의 도서관 운영 및 서비스를 정성적으로 분석하여 두 집단 간에 어떠한 차이가 있으며 그 차이는 학교도서관 전문직으로서 사서교사의 효과를 입증하기에 충분한가를 확인하기 위한 목적으로 수행되었다.

연구방법은 기본적으로 사서교사와 일반교사가 운영하는 각각의 도서관에 대하여 표본을 추출하고 우편으로 설문조사하였으며 필요에 따라 직접 면담, 전화 면담, 이메일 등의 방법을 병행하였다. 사서교사 운영학교 47개와 일반교사 운영학교 49개, 총 96개 도서관의 활동이 분석되었다. 조사 내용은 도서관 담당교사의 도서관 기능에 대한 인식과 도서관 담당교사의 역할에 대한 인식, 활성화 이후 학교구성원(학교장/교감, 교사, 학생)들의 도서관에 대한 관심 추이, 도서관 운영 현황-예산, 장서구성, 자료수집, 자료조직, 비도서 자료 관리-, 교사와 학생에 대한 서비스의 종류, 도서관 행사, DLS와 홈페이지를 포함한 정보기술의 활용정도 등을 포함하고 있으며, 수집한 데이터를 사서교사와 일반교사의 두 그룹으로 나누어 각 영역의 효과를 비교 분석하였다.

조사 분석에서 밝혀진 가장 특징적이고 중요한 부분만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학교도서관의 기능에 대한 인식에서 도서관 담당교사는 전체적으로 현재는 독서기능에 치중하고 있으나 향후 교수 학습정보 제공 기능이 강화되어야 할 것으로 인식하고 있다.

둘째, 우리나라의 경우 사서교사의 역할이나 전문성이 학교사회에 보편적으로 인식되어 있지 않아서 일반교사가 도서관을 담당할 때 동료교사들의 협조를 더 잘 끌어낼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하는 경향이 사서교사와 일반교사 모두에게 있었다. 그러나 활동성과를 분석해 보면 일반교사가 동일 교과교사와의 관련에 있어서나 동일 학년교사와의 관계를 통해 도서관 업무에 협력을 요청할 수 있는 개연성은 있을지언정 실제로 그런 가능성이 실현되지는 않고 있다. 오히려 사서교사가 동료교사들에게 더 적극적으로 협력을 요청하고 있으며 동료교사들의 경우에도 사서교사가 운영하는 도서관에서 이용이 더 많으며 도서관에 대한 요구도 더 많다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었다. 향후 학교도서관

관의 기능이 독서에서 교수 학습정보 제공으로 강화된다면 도서관 담당교사와 동료교사의 협력 관계는 더욱 밀착되어야 할 것이다. 이러한 필요성을 만족시키기 위해서는 사서교사가 필수적이다.

셋째, 학교도서관 운영현황 분석에서 예산, 장서 구성, 자료구입, 장서관리, 자료조직의 전 영역에서 사서교사의 활동은 일반교사의 활동에 비해 더욱 전문적이며 다양하였다. 특히 예산에서는 일반교사보다 연도별 증가가 뚜렷하게 드러나고 있다.

넷째, 학생들을 위한 도서관 서비스에 있어서 사서교사 학교 학생 1인당 대출 책 수는 일반교사 학교 학생의 그것과 비교할 때 약 1.5~2배 정도 많았으며 전교생을 대상으로 하는 이용지도의 경우나 개인을 대상으로 하는 독서상담과 이용지도의 경우에 있어서나 서비스를 실시하는 학교 수 및 서비스 실시 횟수, 그리고 도서관 행사의 종류와 횟수에서 사서교사의 활동은 일반교사에 비해 월등히 많았다.

다섯째, DLS의 이용은 학교도서관 업무의 표준화와 정보의 공유를 위한 기반이라고 할 수 있다. DLS의 활용은 전문지식이 없고 업무 부담이 큰 일반교사의 경우에 더욱 필요한 것이고 효과적일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그러나 실제로는 일반교사의 DLS에 대한 이해, 활용 목적, 이용 빈도 등은 사서교사에 비해 월등히 저조한 상태이다. 향후 일정기간 동안 사서교사의 완전 배치를 기대할 수 없다면 이에 대한 대책을 심각하게 고려하여야 할 것이다.

이상의 분석내용을 종합해보면 일반교사에 비해 사서교사의 도서관 활동이 전문적이며 적극적이며 다양한 것이 증명되고 있다. 사서교사가 배치된 학교도서관은 전담인력이 있기 때문에 다양한 활동을 할 수 있는 것은 당연한 일이다. 그러나 분명히 해 둘 점은 전문 인력이 있기 때문에 일을 할 수 있고 인력이 없기 때문에 일을 할 수 없는 것이 당연한 것이 아니라 사서교사의 배치로 교육 환경이 어떻게 개선될 수 있고 그 결과 어떤 교육적 효과를 학생들이 향유할 수 있는지에 대해 정성적으로 분석하고 그에 따른 대책이 수립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2007년도 학교도서관 활성화 사업 종료 후에는 기왕에 개선된 도서관 시설 설비의 효과적인 운영과 학교 구성원의 도서관에 대한 지속적인 기대가 실질적인 교육 효과로 접목될 수 있도록 사서교사의 체계적인 배치 계획이 도출되어야 할 것이다.

〈참고문헌은 각주로 대신함〉